

박여범의 소소한 일상

모기가 물던 날

점심을 먹고 잠시 운동장을 가볍게 걸어본다. 개화를 맞아 잘 정리된 잔디가 유독 파랗게 다가온다. 그런데 갑자기 팔부터 시작하여 여기저기가 간지럽다.

경상시보다 더 긴지러움이 구성이다. 참나뭇해 굵고 부지러나 보니 벌레가 피부가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벌레도 크기도 눈에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팔은 온통 물림 자극으로 초상집이다.

서늘러 여기저기 약으로 비산소치를 해 봐도 쓰리고 아프기까지 하다. 심지어 여기저기 동통 붓기까지 한다. 신념이 끈두서서 교두신로 넘어왔다.

시골 출신이어서 웬만한 벌레 물림이나 가려움에는 내성이 있었다.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 않는 도시 생활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무엇이든 억울함에 눈물이 쏟아질 것 같다. 그 순간에도 여기저기서 스며스면 올라오는 잔지러



박여범

용북중학교·시인 문학박사·문학평론가

움과 쓰러짐을 이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죽이 무너지는 것은 폭탄이나 커대한 배의 충돌이 아니냐. 쥐 한 마리가 구멍을 파고 들어간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물이 스며들어와 녹이 무너지버린다.

사할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어려운 일은 잘 해결한다. 그러면서도 정작 기본적인 일에는 부너어진다. 가까운 곳은 보지 못하고 이상만 쫓다가 광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열을 잘해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답이 된다.

크기는 파리목 보깃과에 속한 곤충을 통틀어 이른다. 누봉이가 길고 뺨입술이 바늘 모양으로 되어 있어 알컷은 사람이나 가축의 피를 빨아들이며, 수컷은 꽃의 꿀 따위를 옮긴다.

코로나19가 유행하는 현실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답답한 현실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바이러스를 옮기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다.

비말이나 사람의 접촉으로 전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마

스크를 쓰고, 기침에 조심하며, 예방수사를 집중한다.

지구를 지배하는 우리 인간이 작은 바이러스에 떨릴 땀이 지낸다. 한주먹 거리도 되지 않는 작은 나생물이 자신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인간을 죽임으로 들고 가곤 한다. 바이러스를 옮기는 대표적인 것이 모기, 파리 등이다.

'까짓, 물어보라' '내 피가 그리도 맛있더냐' '어서 많이 먹거라' '넌은 기슴으로 너를 물어 줄테니.....'

단순히 한 라 물린 크기를 때려삼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뽕' 소리에 눈 들어보면 어디 갔는지 찾을 수 없다. 언더나 빠진지 크다.

요리조리 미행기 고계 하듯 공중 서키스가 일품이다. 오늘도 나는 모기에 물렸다. 늘 있어 온 것이다. 그렇다고 당황스럽지도 않다. 걱정은 없다.

사설

이해충돌방지법의 과제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는 대한민국을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다.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집단으로 부동산 투기를 해왔기 때문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이 인허가, 계약, 채용 등의 과정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한 법이다.

지난 4월 29일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할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 자신의 직무수행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해야 한다.

소속 공공기관 등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는 행위, 소속 공공기관 등과 수익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

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국회의원, 공공기관 임원·정무직,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 명이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이미 오래전에 도입했다. OECD도〈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2008년에 제정, 회원국에 제도의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1962년 캐나다 정부가 제정한 이해충돌방지법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법으로 평가받는다. 싱가포르 리완우 전 총리는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20년 기준 국가청렴도(CPI) 3위, 기업하기 좋은 나라 2위, 국가경쟁력 1위의 나라가 됐다.

공직자들이 지위를 악용해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할 때이다. 대한민국은 아직 선진국의 문턱을 제대로 건너지 못했다.

통일교육관 없는 전북

전북 지역에는 지금까지 '통일교육관'이 없다. 유독 전북에만 없는 것이다. 통일교육관 혹은 통일관은 현재 어떤 지역은 2개, 혹은 3개까지 있다.

정부는 전국 13곳에 통일관을 건립 운영하고 있다. 통일관이 있는 곳은 서울, 인천, 양구(강원), 철원(강원), 고성(강원), 청주(충북), 충남(공주), 대전, 광주, 경남, 부산, 제주 등이다.

통일부가 직접 운영하는 곳은 경기도 파주의 오두산 통일전망대 한 곳이다.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통일관은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건전한 안보관을 정립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후 통일교육관에 대한 각계의 호응이 높아지면서 각 지방에서도 통일교육을 위한 전시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결국 1988년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 통일관을 설치했다. 그 뒤 연차적으로 부산, 광주 등지에도 통일교육관들이 만들어졌다.

통일관에는 북한의 신문, 책자 등 각종 북한 자료 등이 전시되어 있다. 북한의 국제 관계, 교육 및 군사 제도 등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북한 주민의 생활용품 등 각종 북한 물품, 북한 실상 및 대북정책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전시 패널과 관련 동영상 자료, 북한 서적 등 특수 자료 등을 볼 수가 있다.

예전에는 통일관에 주로 북한 달력, 책자, 신문 등 전시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요즘은 트리아트나 동영상 등 체험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과거 전북 출신 통일부장관이 두 명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심이 없다. 전북에만 통일교육관이 없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 같다.

통일교육관은 지역 주민들과 청소년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통일교육을 강화하는 곳이다. 전북 지역에 하루빨리 통일교육관 건립을 하기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미국 수송기에 탑승하는 아프간 탈출 현지인들



24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서 아프간을 탈출하는 현지인들이 미 공군 C17 수송기에 탑승하고 있다. 미 유럽사령부 토드 윌더스 사령관은 지금까지 7000명 이상의 아프간인이 독일과 이탈리아 등 유럽 8개 지역으로 탈출했다고 말했다.

테네시 홍수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주택



25일(현지시간) 미 테네시주 웨이벌리에서 주민들이 홍수로 파괴된 집 잔해를 치우기 위해 모여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